

종합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은 지역민 희생 불합리한 정책”

광주시, 정부 방침 반박 전면전 양상

전남도, 시군 의견 국토부 전달 계획... 지역 갈등 우려

광주시가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차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공항 국제선 재유치를 민선 5기 100대 과제로 내놓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최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광주시 차원에서 정부 방침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 역시 북도시와 무안·영암군 등 무안공항 인근 1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조만간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공항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도 첨예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는 21일 “광주공항 이용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불합리한 공

항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안공항이 개항한 지난 2007년 말 이후 정부가 광주공항의 지역 내 기능 및 역할, 승객 편의 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통합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모두 쇠락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무안 광주시는 광주공항 국제선이 무안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광주공항은 김포·제주·김해공항과 더불어 국내 4대 허자공항이었으나 정부가 광주공항 국제선을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적자공항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공항 이용객 중 60% 이상이 광주~제주 구간 이용객으로,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더라도 공항 수요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

난해 광주공항 연간 이용객 136만명 중 60%인 83만명이 제주공항 이용객이었다. 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모두 운영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영남권의 5개 공항(대구·포항·울산·김해·사천), 강원도의 원주공항 및 양양공항을 사례로 들며 논리적 일관성이나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광주시가 이처럼 광주공항 이전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호남권 중추도시로서 경제·문화·관광 부문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존 광주공항 이용객 대부분이 무안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무안공항의 국제선도 2~3개만 겨우 유지되고 있는 등 무안공항이 제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2014년까지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공항 이전 내용을 담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에 있어 광주시의 이 같은 주장이 종합계획에 반영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문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정부가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옮겨보자’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은 공항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무시한 공항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오전(현지시각)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청을 방문, 조지 그림 에딘버러시장과 양 도시 간 축제교류 등을 협의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영 에딘버러시 축제교류 추진

강시장, 문화·교육 등 확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조성 중인 광주시와 세계적 축제도시인 영국 에딘버러 시가 문화·축제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19일 영국 에딘버러 시청을 방문, 조지 그림 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축제교류를 제안했다. 강 시장과 조지 그림 시장은 내년부터 각 지역의 축제 1개씩을 교류하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에 맞춰 광주에서 양 시가 주최하는 대규모 축제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에딘버러

시와 광주는 역사적 측면에서는 물론 문화예술도시, 교육도시, 창조도시로 유사성이 많다”며 “우선 축제교류를 시작하고, 점차 문화·교육·경제 분야 등으로 교류를 확대해 우호·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조지 그림 시장은 이에 대해 “양 도시 간 축제교류는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해가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옛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인 에딘버러는 중세 성곽도시의 유적과 도시 계획의 중요한 유산이 산재한 역사도시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대표적 문화유산 도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

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역사유적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마다 에딘버러 국제페스티벌과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 12개의 국제적인 축제가 열리는 등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역사·예술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에딘버러와의 축제교류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며 “에딘버러 축제의 운영 및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다면, 우리 축제를 세계적 인 축제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안공항~상하이 항공노선 주 4편으로

내달부터 증편 운항

전남도는 무안 국제공항과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다음달부터 증편된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동방항공이 운항중인 무안-

상하이 노선은 현재 주 2차레이며,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주 4편으로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홍콩, 광 등으 떠나는 동남아 노선 전세기도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며 베이징노선도 주 2차례 계속 운항된다. 지난 7월 이후 중단된 수도권과 연결되는 김포 노선의 재운항 계획도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무안~김포 노선 운항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아시

아나항공도 현재 주 2차례 운항중인 제주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은 중국이나 동남아를 오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공항”이라며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와 항공노선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n advertisement for 'Sun Day' (일요일만 평)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holding a sign that says '재수사' (재수사 하긴 한답니다). The cartoon shows a person looking at a sign that says '재수사' and another person holding a sign that says '재수사'.

500만원 이하 후원금도 수사 검토

검찰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중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의원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수백만원의 뭉치돈을 직접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들을 처벌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직

접 현금을 건네받은 의원실은 정치자금법 혐의가 좀더 크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금 받은 곳은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조진형(한나라당) 의원실 등 지난 5월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의원실 3곳 외에도 5곳이 더 있다. 강봉균·강운태(현 광주시장)·박주선·이춘석(이상 민주당)·조원진(한나라당) 의원실 등 5곳은 청목회로부터 ‘B급 대상’으로 분류돼 후원금 500만원이 관계자들에게 건네졌고, 박주선의 의원실 등 일부는 문제가 되자 나중에 돌려주기도 했다. /연협뉴스

전남도 ‘우주로봇 메카’ 거듭난다

도 ‘우주로봇협회’ 창립... 기업·학계 인사 등 100여명 참여

전남도가 우주로봇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19일 ‘우주로봇협회’ 창립총회를 갖고 현대중공업과 한화 등 기업체 관계자, 성균관대·한양대 등 학계 인사, 방위사업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원 등 100여명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석환 성균관대 지능시스템연구소장을 우주로봇협회장으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우주로봇 신기술 연구개발 및 국내외 우주로봇 기술의 사업화, 내우우주센터와 연계한 사업 다각화 등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 우주로봇과 관계된 중대형 국가 R&D 연구과제를 기획해 유치하는 한편, 국내외 우주로봇 기업의 전남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역을 우주로

봇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7월 전남대에 우주로봇연구소 설립을 뒤 전남도 로봇연구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 및 지원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우주로봇사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ew Opening Case' (新裝開業案内) for Hanchong Hotel (韓成會館). It mentions a new expansion and a grand opening on December 1st. Contact information: 062)224-2841 ~ 2010-11-22.

Advertisement for 'New Public Introduction' (새롭고공인중개사) by GJ Serom. It offers nationwide top real estate agent training and a grand opening on December 1st. Contact information: 361-8111, 268-8111.

Advertisement for 'Debt Collection' (부실채권) by Saehan Credit Information. It offers debt collection services for various types of debts. Contact information: 062)228-0990, 010-8494-9484.

Advertisement for 'Green' (양코) supplements. It features a woman's face and promotes health benefits. Contact information: 070-7786-6631, 010-6306-7070.